

2005 상반기 주요 문화관련 연구 현황

우리나라의 문화관련 연구는 그 동안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는 사업 위주의 환경 탓에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문화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진행해 온 그간의 성과가 문화영역에서 다뤄진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문화 분야의 연구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창의력이 국가의 주요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현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 양상이 사회·경제 분야의 연구와 맞물려 주요한 전략코드로 작동하면서 문화 관련 연구 수요가 양·질적인 면에서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6월,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창의한국’ ‘새예술정책’이 보여주는 새로운 문화적 비전이 향후 문화정책 방향의 기능자가 되고 있는 지금, 각 지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문화관련 연구 현황을 짚어 보는 것은 나름의 필요와 의미를 갖는다. 각 지역의 문화·지리적 특수성이 반영된 연구보고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새로운 문화 비전 속에서 지역의 문화가 어떤 모양과 발전상을 가지고 있고, 국공립 문화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범위가 어떤 범위와 층위를 가지고 확대되어 가는지 그 양상과 향후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문화관련 연구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이 글은 그 범위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글은 2004년부터 연구되어 2005년 상반기에 발표된 연구보고서를 그 대상으로 하였고 2005년 상반기까지 각 연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구보고서가 그 대상임을 밝힌다.

국·공립 연구기관을 비롯해 각 시·도별 현안을 연구하는 지역발전연구원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 물

론, 민간단체나 연구기관들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없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지형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기반 환경조성

2004년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은 문화 분야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큰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중심 도시와 관련된 굵직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하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광주 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환경 연구』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그것이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 및 관광진흥 정책 등을 연구하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http://www.kcdi.re.kr>)에서는 2004년 정책 연구 총 13건 중 3건이 문화관련 연구일 만큼 문화중심도시 추진이 활발한 가운데 가장 무게 있는 연구 대상으로 쟁점화 되었다. 이 중에서 주변지역인 전남의 문화발전과의 연계성을 다루고 있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전남의 문화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 광주 문화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성화 사업 대상으로 지정받은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상품디자인 산업 지구 형성 및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방안』이 눈여겨볼 만한 연구보고서라 할 수 있겠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한 연구작업도 활발한 편이었다. 최근 청계천 복원 기념조형물 선정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청계천 복원 추진 본부에서 발주한 청계천 복원 사업 관련 연구보고서 『2004년 청계천 복원에

1) 2005년 상반기까지 각 연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구보고서가 그 대상임을 밝힌다.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청계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연구』『청계천복원사업 백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http://www.sdi.re.kr>)에서 발간되었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환경 정비

문화정책 내 경관 관련 의미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현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http://www.kctpi.re.kr>)에서 『도시경관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것을 비롯, 문화경관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발전연구원(<http://www.bdi.re.kr>)의 경우, 역사문화자원과 그 주변 환경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징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역사미관지구와 같은 관련 법규를 비롯해 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부산지역 역사문화환경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역사문화미관지구를 중심으로)』가 수행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은 충청남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조례 제정에 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 지역의 경관관리 디자인 정책 방안』은 충청남도권 시·군에 경관 및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으며 충북개발연구원(<http://www.cbdi.re.kr>) 역시 『지역 특성을 살린 건축물 외관 가꾸기』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문화환경 정비를 제도권 내 주요 사안으로 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문화시설 확충과 전문적인 운영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문화시설 건립이 중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에서는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 그 건립근거가 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은 문화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화시설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적 고찰로써 『문화시설의 가치 추정 연구』를, 국토연구원(<http://www.krihs.re.kr>)에서는 향후 문화 기반 시설 설립시 직접 지원을 전제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법의 주요 쟁점 및 인허가 사항을 중심으로』를 최근에 발간하였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과 같은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활권 단위의 인구 면적, 문화기반시설 현황과 문화적 여건을 고려한 문화시설의 공급기준을 산출하고자 한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문화시설의 가치 추정 연구』와 어느 정도 비교해 볼 만하다.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특수한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충남 홍성군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고암 이응도 화백 생가지 복원 및 기념과 건립 및 기본계획』을 내놓았으며, 인천발전연구원(<http://www.idi.re.kr>)에서는 『인천 구도심의 문화적 재생과 미술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근대건축물 보존 지역에 조성될 미술문화공간의 조성과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한 『악기 관련 문화산업 단지 조성』의 경우 흔하지 않은 문화시설 확충 연구보고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그로블리츠(Groblitz :

1540~1609) 바이올린(Groblicz Violin 1606)을 충청북도에 기증하여 보다 가치 있는 세계문화유산자원으로 활용하기 바라는 기증희망 의사에 따라 기증악기를 이용한 발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명품악기 기증을 전제로 악기 관련 문화단지 조성방안과 관련 모델을 모색했다는 점에 있어 새로운 문화시설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 방안 연구-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 지구를 중심으로-』 『은평 뉴타운 내 문화시설 확충 계획 연구용역』을 2004년 하반기에 발표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충청남도 시·군별로 추진되는 문화공간 조성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역사 자산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전략 연구』가 있다.

그 밖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창작환경 기반 확대 및 창작지원 정책의 일환으로써 '새예술정책'에서 언급된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방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방안 연구>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실효성 분석 및 내실화 방안 연구>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상주제도 연구> 등이 2004년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문화활성화를 위한 역량 제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http://www.ddi.re.kr>)에서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구의 문화자원 보존 및 개발, 문예관련 법규 정비와 같은 문화창작환경의 개선, 문화전문인력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문화콘텐츠 비즈니스의 진흥과 같은 문화소프트웨어를 진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안을 『대구광역시 문화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전략』

을 통해 제안한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놓았고 해당 지방 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충북개발연구원이 지역의 문화예술 중장기안을 마련하고자 『충주시 문화예술중장기 발전계획』을 실시하였다.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반은 그에 따른 문화적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문화정책에서 문화수요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전환의 필요성, 문화정책의 분권과 경향, 문화향수에 있어 문화격차의 사회적 문제의 개연성을 논의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 문화격차 : 실태와 정책 과제』는 앞서 언급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보고서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반 마련 측면에서 다뤄진 연구보고서와 달리 인천발전연구원은 지역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읽고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역문화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인천의 문화현장, 그 현재와 미래』를 내놓았다.

그 밖에 좀더 폭넓은 문화예술 개념에서 논의될 수 있었던 『예술에 대한 민간 기부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와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05년 3월,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예술 관련 법 체계' 논의를 살필 수 있다)가 2005년 상반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되었다.

국제화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 확대

여타의 연구원과 달리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 '부산학

2) 2005년 3월,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예술 관련 법 체계' 논의를 살필 수 있다.

연구사업' 활동이 두드러진다. 2004년 하반기에 부산학 연구사업 중간발표회를 통해 그 윤곽을 드러낸 『부산학 기획연구·교양총서·국제화연구』는 부산을 범위로 한 총체적인 문화연구로 볼 수 있다. 『부산도시 이미지 연구』를 비롯해 부산학 교양총서 부분에서는 『현대 부산인의 일상생활연구』, 『부산의 여기문화』 등을 다루고 있고 부산학 국제화 부분에서는 아시아 국가간 교류에 따른 역할 증대가 예상되는 한·중·일 국제도시인 『부산, 상해, 후쿠오카의 생활시간 비교 연구』를 다룬다. 지역 연구원 중 유일하게 문화관광연구팀이 구성되어 있는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실태 파악을 통해 문화적 층위에서 이들의 문제를 살펴보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의 사회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함께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논의가 『지역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문화예술교류 증가에 따른 국내외 기반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와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 보고가 2004년 하반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되었다. 현재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향수 프로그램 개발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청소년문화활동 활성화 방안』에서 창의적인 주제를 위한 청소년 문화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청소년의 주체적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서울문화재단 민간제휴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서물문화재단과 민간간의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매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반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소외된 문화 향유층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을 내놓아 고령 문화향유 대상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문화산업을 통한 문화 향유 수단의 다변화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보고서로 전북발전연구원(<http://www.jd.re.kr>)의 『전라북도 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와 경기개발연구원(<http://www.gri.re.kr>)의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전략 연구』의 『문화산업 관련 연구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들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각 업종별로 80~90%의 기업이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역 문화산업 환경의 문제점을 짚어보면서 지역문화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목표로 정책적 맥락에서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세부적인 문화산업적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정책연구실에서는 2005년 상반기까지 『순수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전략 개발』 『설문조사에 대한 입고찰 :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음악시장 활성화 방안』 『일본국제교류 기금의 대외문화 전략』 『문화산업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일본 내 한국 대중문화 상품의 유통 실태분석』 『블록부킹(block-booking)의 공정경쟁성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 사회회계행렬(SAM) 분석』 『공교육에서의 영상미디어교육 체계화를 위한 교육 과정 연구』 『국제영화제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박미정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